

60대 청춘의 아름다운 도전

우리 땅 걸어서 삼천리

| 이정수 지음 |

66세 뚜벅이 할아버지의 좌충우돌 여행일기.
여행길에서 사먹는 음식들에 대해 투덜거리고
모자도 두 번이나 잃어버리고 심지어
묵고 있는 여관까지 잃어버리며 허둥대지만
그는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말들을
길 위에서 툭툭 던져놓고 있다. 그래서인가, 그의 모습은 참으로 인간적이다.



도서출판 **산·미디어**



15천원 이상 구매 시 우

60대 청춘의 아름다운 도전
우리 땅 걸어서 삼천리

지 은 이 | 이정수
펴 낸 이 | 김원중
기획·진행 | 네오그래픽(주) 기획팀
표지·편집 | 네오그래픽(주) 디자인팀
펴 낸 곳 | 네오그래픽(주)
도서출판 선미디어

초판인쇄 | 2002년 11월 25일
초판발행 | 2002년 12월 0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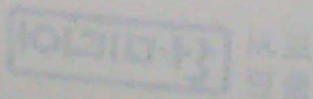
출판등록 | 제2-2576호(1998. 5. 27)

주 소 | 서울 중구 예장동 1-4
우편번호 | 100-250
전 화 | (02)2285-3003(代)
팩 스 | (02)2285-3008

ISBN 89-88323-38-6 03810

값 8,000원

-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 본문에 실려 있는 글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차 례



책을 내면서 6

1부 걸어서 전국일주 11

꽃샘추위와 함께 한 전주~광주 13

“60대 청춘 걸어서 3천 리” 출발! • 걷는다는 게 장난이 아니네
• 무슨길 바빠바빠 가는 나그네 • 우짜서 비싼 밥 먹고 쓸디없는
일 한데요?

섬진강 따라 걷는 광주~부산 57

명칭이 길은 피곤해 • 하루 백 리 길은 너무 했어 • 산불은 무서
워 • 진주라 천 리 길을 내 어이 왔던고 • 손자놈이 보고 싶다 •
불청객 황사 • 막걸리가 제일이지 • 구포교 70년 세월

벚꽃 만발한 부산~대구 123

길 따라 강 따라 • 할머니 생각 • 콧물감기, 물렸거라

산과 물과 꽃이 어우러진 대구~춘천 147

발바닥이 뜨거워 • 공 차느라 해지는 줄 모르던 시절... • 오랜 만에
사람대접 받으니 좋다 • 벚꽃이 아름다운 문경 • 산과 물과 꽃이 어
우러진 역사의 길 • 세 강(江)이 흐르는 곳, 충주 • 인생이란 고개와
같은 것 • 빗길은 괴로워 • 터널은 무서워 • 길 따라 산 따라 강 따라

설레는 마음으로 가뿐한 춘천~서울 221
마지막 밤·남대문아, 다시 보자

2부 지리산 종주 235

돌길 지옥길 화엄사~노고단 237

구름떼의 장관 노고단~벽소령 247

천왕봉에 서다 벽소령~천왕봉 255

여행을 끝내면서 260

|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

- 준비됐나요? 걷기 전에 따라해 봐요 33
- 나는 오른쪽 찾길로 걸어요 41
- 걷는 속도로 거리를 잴어요 55
- 발이 뜨겁고 발가락이 아프다고요? 67
- 술은 적당히 마실 줄 알아야죠 99
- 인터넷을 배워보세요 182
-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211
- 혼자서 할 수 있는 발 마사지, 이렇게 219

'60대 청춘 걸어서 3천 리' 출발!

3월 12일 전주에서 운암까지



날씨는 맑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고 높다. 60대 청춘 걸어서 3천 리, 첫날이다.

아침 아홉 시, 나는 전주의 상징 풍남문 앞에서 '60대 청춘 걸어서 3천 리' 라고 쓴 깃발을 높이 들고 장도의 첫걸음을 시작한다. 한 걸음, 두 걸음이 천 걸음, 만 걸음이 되어 3천 리를 누비리라.

내가 굳이 전주 풍남문에서 첫걸음을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풍남문은 역사적으로 후백제의 왕도요, 조선왕조의 발상지이다. 또 1894년 동학혁명 때에는 농민군들이 원평, 금구를 거쳐 이 풍남문을 통해 전주에 입성했다. 그래서 풍남문은 역사의 현장으로서 유서 깊은 곳이며 전주인의 가슴속에 영원한 우상이자

자랑으로 남아 있다.

풍남문은 보물 제308호로 원래 전주부성의 4대문 중 남문이다. 고려 공양왕 원년(1389)에 최유경 관찰사가 처음 축조했고, 조선 조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 때 불에 탔다가 영조 10년(1734)에 재건, 이름을 '명전루'라 했다. 그러다 다시 영조 44년(1768)에



전주 풍남문 앞에서

전주 성내에 큰 불이 나서 소실된 것을 그해에 중건한 것이 바로 원래의 3층루가 아닌 지금의 모습이 되었으며, 이때부터 풍남문이라 불렀다.

늘 무심코 지나치던 풍남문이 오늘따라 내게 용기와 인내와 격려의 징표로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이곳을 장도의 시발점으로 택했기 때문일까.

풍남문 뒷길을 따라 가다보니 싸전다리가 나타난다. 옛날에 이 싸전다리 근처에서 쌀을 비롯한 곡물을 팔고 사는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싸전다리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내가 20대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의 이야기이다. 싸전다리를 중심으로 다리 위뿐 아니라 양쪽 천변 독 좌우에서는 딸감나무 시장이 열렸었다. 전주 인근인 구이, 상관 등지에서 산촌 농민들이 지게에다 딸감나무를 한 짐씩 지고 와서 이곳에 세워

놓고, 땀감나무 임자를 기다리는 나무시장이 상당히 큰 규모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기름이나 연탄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시대였으니까... 전주시민에게 필요한 상당한 양의 연료가 바로 이곳에서 거래되었다고 봐도 된다. 이곳에서 사고팔던 땀감은 주로 소나무 가지를 베어서 말린 솔가지나무였으며 소나무 잎을 주워 모은 갈키나무를 비롯한 잡목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도막낸 장작나무 등이 주를 이루었다.

싸전다리를 지나 27번 일반국도를 따라 30여 분 걸어가니 왼쪽으로 전주교도소가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지금으로부터 20~30년 전만 해도 전주교도소는 전주의 관문인 노송동 철길 옆에 있었다. 그 당시 꽤 똑똑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 사람이 전주를 찾아오면서 제일 먼저 마주치는 곳이 빨간 벽돌집 형무소라면 그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또 전주사람 체면도 말이 아닐 거요.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도소는 반드시 외곽으로 옮겨야 합니다.”

라고 외치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렇게 해서 교도소는 지금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 당시 교도소를 옮길 때만 해도 지금의 위치는 시내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통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사이 교도소 주위가 너무 변화해져서 또 더 외곽으로 옮겨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니, 세상은 참 너무 빨리